

자활사업 참여자의 가족탄력성이 자활의지에 미치는 영향: 가족지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Effect of Family Resilience of Self-Sufficiency Program Participants on the Will to Be Self-Sufficient: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Family Support

중앙승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강 사 김 정 희

Dept. of Social Welfare, Joong-Ang Sangha University
Instructor Kim, Jung-Hee

〈목 차〉

I. 서론	IV. 연구결과 및 해석
II. 이론적 배경	V. 결론 및 제언
III. 연구방법	참고문헌

〈초록〉

본 연구는 자활사업 참여자의 가족탄력성이 자활의지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탐색하고 그 관계에서 가족지지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은 강원도 소재 지역자활센터에 참여하고 있는 20~70대 283명이다. 통계분석은 IBM SPSS18을 통해 기술통계, 차이검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매개효과는 Baron & Kenny(1986)의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방법에 따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활사업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주요변수들과의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자활의지는 돌봄가족, 가구소득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가족탄력성은 연령대, 결혼상태, 건강상태, 가구유형, 돌봄가족, 주택소유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가족지지는 연령대, 결혼상태, 건강상태, 가구유형, 돌봄가족, 부채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둘째,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자활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돌봄가족이 있을수록, 가족탄력성과 가족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자활의지 수준이 높았다. 셋째, Baron & Kenny(1986)의 매개효과 분석결과 가족탄력성과 자활의지 관계에서 가족지지는 완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의지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대안으로 가족탄력성과 가족지지가 중요한 요인임을 검증하였다.

주제어: 가족탄력성, 가족지지, 자활의지,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참여자

〈Abstract〉

This study explored how the family resilience of participants in self-sufficiency programs relates to their willingness to be self-sufficient and analyzed the mediating effects of family support in the relationship.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283 people in their 20s to 70s who are participating in a local self-sufficiency center in Gangwon-do. Statistical analyses were conducted using IBM SPSS 18, with descriptive statistics, difference verification and regression, and mediating effects analyzed following Baron & Kenny(1986).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we conducted difference verification between the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in the self-sufficiency program and major variables.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willingness to be self-sufficient in terms of the caregiving family and household income. Family resilience differed significantly depending on age group, marital status, health condition, household type, caregiving family, and homeownership, while family support differed significantly in age group, marital status, health condition, household type, caregiving family, and debt. Second, we conducted a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to determine the factors

influencing the will of self-sufficiency of those participating in the self-sufficiency program and found that the better the health condition, the presence of caregiving families, and the higher the level of family resilience and family support, the higher the level of will to be self-sufficient. Third, analyses of the mediating effect following Baron & Kenny(1986) have shown that family support has a full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resilience and the will to be self-sufficient. Thus, we have verified that family resilience and family support are important factors as an alternative to improving the level of willingness for self-sufficiency program participants.

Key Words: family resilience, family support, self-sufficiency, community self-sufficiency center, participants on will of self-sufficiency

I. 서론

현대사회는 세계화로 인해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가 간의 경쟁 심화로 노동시장이 급격히 변화하고 이로 인해 빈곤과 실업을 해결해야 할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1990년대 서구 복지국가에서는 복지수급 및 노동의무 연계를 의미하는 근로연계복지가 대안으로 제시되었다(우준희, 2010). 우리나라 역시 2000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으로 근로능력자에 대해 근로유인을 위한 소득공제 실시, 조건부수급자 제도를 통한 자활사업 참여의무 부과, 가구별 종합자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자활을 지원하고 있다.

자활사업은 근로역량 배양 및 일자리 제공을 통한 탈빈곤 및 빈곤예방을 지원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의 배양,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자활사업제도는 지역자활센터의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급하여 참여자들의 복지혜택에 대한 의존을 방지하도록 하여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자 진행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2). 2021 자활사업 안내 I 에 따르면 전국 자활센터는 1996년 전국에 5개소를 시작으로 2000년 70개소, 2002년 192개소, 2021년 현재 250개소로 확대된 것으로 보고하였다(보건복지부, 2021).

하지만 자활사업이 자활센터의 양적인 확대와 더불어 형식적인 틀이나 방향은 상당부분 갖추어졌지만 성과가 낮고, 수급자들의 노동시장 진입에는 성과부진이라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이진석, 2017; 장용언, 2015). 이러한 비판은 근로빈곤층을 다양한 사회환경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경제적 관점으로만 이해하는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한상진과 김용식(2007)은 자활성과 평가에 경제적 측면에만 초점을 두는 것은 다양한 과정에서 다차원적 형태로 나타나는 빈곤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함으로 인해 복합적인 빈곤의 원인이나 결과를 간과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았다. 따라서 탈빈곤을 위한 완전한 자활을 위해서는 외부로의 의존에서 벗어나 스스로 독립할 수 있다는 의지와 사고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하다고 볼 수 있다(엄태영·김동기·허미영, 2008; 이래혁·김승아·노혜진, 2007; 정원오·김진구, 2005). Amy(2000)는 공공부조 수급자들의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더불어 심리·정서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그들의 탈수급에 중요한 요인이 되지만 무엇보다 자활 참여자들의 자활의지를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았다.

국내외에서 저소득층의 자활의지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활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 중 본 연구의 취지에 맞게 자활사업 참여자, 저소득층 여성,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한 인구사회학적 요인 및 가족 요인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인구사회학적 요인 중 성별은 대부분 여자인 경우 자활의지가 높았는데(김교성·강철희, 2003; 이상록, 2003; 장덕희·김정은, 2017; 김용석 외, 2015), 상반된 결과로 이석환 외(2014)의 연구에서는 남성이 자활의지에 더 강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송인한·박장호·김리자, 2012; 장용언, 2015) 혹은 낮을수록(김교성·강철희, 2013; 김부강, 2013; 나구원, 2011) 자활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역시 상반된 결과들 이었다. 혼인 상태는 미혼, 이혼, 사별보다 결혼인 경우 자활의지 수준이 높았고(황보람 외, 2015), 이와 반대로 김부강(2013)의 연구에서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 자활의지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사항에 있어서 자활의지와 정적인 영향력이 있었고(권민숙·윤영석·김근식, 2012; 최별·이성규, 2019; 이석환 외, 2014), 건강상태도 자활의지와 정적인 영향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권용신, 2009; 김선경, 2012; 김교성·강철희, 2003; 이상록, 2003; 장용언, 2015; 최별·이성규, 2019). 수급 형태는 조건부수급자, 자활특례자, 일반수급자 보다 차상위계층이 자활의지가 높았고(황보람 외, 2015), 최은주(2007)의 연구에서는 조건부수급자, 일반수급자, 모자복지대상자 순으로 자활의지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월 평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자활의지가 높았다(최은주, 2007). 가구부채와의 관계에서 부채가 없을수록 자활의지가 높았고(송인한 외, 2012; Hawkins, 2002), 가구부채 수준별 차이검증을 한 이상록(2003)의 연구에서는 501만원~1000만원, 101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없음, 500만원 이하 순으로 자활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소유 상태에 따른 차이는 전세, 자가, 월세 순으로 자활의지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활의지를 비롯해 자활과 관련한 자활인식, 취·창업 의지와 가족요인과의 영향관계가 있는 것은 가족탄력성(장덕희·김정은, 2017), 가족지지(강수운·이동훈, 2019; 성예현, 2013; 송인한 외, 2012; 김선경, 2012), 가족응집력(장용언, 2015), 가족친밀도(경승구·이용갑, 2018), 사회적지지(최별·이성규, 2019; 최중희, 2010) 등 이었다. 주요변수인 자활의지와 관련성이 높은 변수 및 가족관련 변수에 따른 결과들은 모두 정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에서 성별, 연령, 혼인상태, 학력사항, 건강상태, 수급형태, 가구소득, 부채, 주택소유와 같은 개인적 요인을 비롯해 가족탄력성, 가족지지, 가족응집력, 가족친밀도, 사회적지지와 같은 구성원들 관계에 대한 가족의 자원도 자활의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자활의지는 특정한 한 가지 요인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개인적 요인을 비롯한 다양한 가족관련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빈곤의 대물림을 멈추고 참여자 개인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들을 위한 완전한 자활을 위해서는 경제적 자활 못지않게 과정적 측면의 일부라 할 수 있는 가족의 자원들이 고려되어야 한다(Gay & Borus, 1980). 우리나라에서 가족의 여러 요인들은 정치, 경제, 복지, 교육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핵심체계라고 볼 수 있는데 빈곤에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박정애, 2015; 고영희, 2014; 이성희 외, 200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활의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대안으로 가족자원의 핵심 요소인 가족탄력성과 가족지지와의 관계에 대해 탐색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바탕으로 자활센터 참여자들의 완전한 자활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둔다. 본 연구에 따른 결과는 모든 자활센터 참여자들이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면서 사회에서도 원활히 기능하여 그들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자활센터 참여자의 자활의지

자활사업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권자를 자활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사전조치로써 근로능력의 유·무 판정 후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해 조건부과 및 유예를 결정하여 최종적으로 선정한다. 자활사업 참여 자격은 조건부수급자, 자활참여특례자, 일반수급자, 특례수급가구의 가구

원, 차상위자,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로 분류한다. 또한 참여자의 자활능력과 사업유형에 따라 근로유지형(30%미만)과 업그레이트형(70%이상)인 사회서비스형, 인턴·도우미형, 시장진입형으로 구분한다.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주요 사업영역으로 간병·집수리·청소·폐자원재활용·음식물재활용사업의 5대 전국표준화사업을 중점사업으로 하되, 정부재정사업의 자활사업 연계 활성화 등 지역실정에 맞는 특화된 사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추진하고 있다. 주택개보수, 정부양곡배송사업, 환경정비, 세탁, 영농 등이 이에 해당한다(보건복지부, 2021). 2021년 현재 자활사업 참여자 수는 총 26,643명이고 성별은 남성 12,008명(45.07%), 여성 14,635명(54.93%)으로 여성이 약 10%정도 더 많이 차지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29세 이하 1,549명(5.81%), 30~39세 1,783명(6.69%), 40~49세 5,261명(19.75%), 50~59세 9,808명(36.81%), 60세 이상 8,242명(30.93%)으로 50대, 60대 이상, 40대 순으로 자활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자활복지개발원, 2021).

자활의지(self-sufficiency will)는 자활의욕(강남식·신은주·성정현, 2002), 자립의지(박영란·강철희, 1999), 근로의욕(노희경, 2004) 등과 같이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장용언·서정열·황현주, 2014). 박경숙과 박능후(2001)는 자활의지란 정서적 자활의 하위개념으로 외부의 자원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 이라고 하였다. 권민숙 외(2012)는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다는 의지와 생각으로 미래에 대한 기대를 통해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태도를 자활의지라고 하였다. 또한 권용신(2009), 김승의(2007)는 소득 부재로 인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빈곤한 사람들이 근로를 통해 스스로 자활 및 자립하려는 열망과 동기를 포함하는 심리적인 능력을 자활의지라고 정의하였다. 이렇듯 자활의지는 다양한 학자에 의해 그 의미가 정의되었고 자활에 대한 성과를 측정하는 심리 변수중 하나라도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왔다(김세원, 2005).

빈곤은 만성화에 따른 다음 세대로의 전이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Wilson, 1987). 따라서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자활활동을 통해 빈곤선 이상의 경제적 소득을 달성하였다 하더라도 추후 근로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면 진정한 자활의 목적을 성취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장용언 외, 2014). 따라서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갖추어야 할 것은 경제적 자활에 앞서 본인 스스로 근로를 통해 빈곤을 벗어나고자 하는 심리적 태도 즉, 자활의지를 갖도록 하는 것이다.

2. 가족탄력성과 자활의지

탄력성(Resilience)은 발달 및 적응에 따른 심각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해 내리는 것을 의미한다(Masten, 2001). 가족탄력성은 개인탄력성 개념에서 출발하여 개인에 대한 문제가 가족으로 확장되면서 도출된 개념이라 볼 수 있다

(김미옥, 2001). 가족탄력성은 많은 학자에 의해 정의 및 개념화되고 있으나 합의된 정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이희윤·박정윤·조유현, 2013). 개인탄력성이 역경과 굴복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구체적인 능력과 특성을 강조한다면 가족탄력성은 가족이 회복하는 과정에 초점을 두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McCubbin, et al, 1999). 다양한 학자에 따른 가족탄력성의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Walsh(1998)는 위기나 도전에 대응하여 인내하며 스스로 회복하면서 성장하려는 적극적인 과정을 뜻하는 것으로 가족의 실패에 초점을 두기보다 가족의 잠재적 회복과 성장을 확신하고 어떻게 성공하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관심이라고 하였다. Valentine & Feinauer (1993)은 압박받고 구부러져 늘어진 후에도 기본적인 지위와 형태로 되돌아가는 능력 혹은 힘뿐만 아니라 역경을 이겨내고 스트레스로부터 생존하며 불리한 조건에서 일어나려는 능력이라고 보았다. 또한 가족의 병리적인 부분보다 건강함을 강조한 Hawley & Dehan(1996)은 가족이 실패하는 이유보다는 어떻게 성공하는지를 강조하였다. 가족탄력성 접근은 탄력성의 입장에서 보면 성장 및 문제해결을 위한 가족의 잠재력을 확신하게 되는데 환언하자면, 가족들이 파괴적 삶의 환경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삶을 지탱하게 하는 주요 상호과정들을 강화하고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이인수, 2004).

자활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가족탄력성과 자활의지와와의 관계를 보고자했던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따라서 주요변수를 포함하고 주요변수와 의미가 유사한 자아탄력성, 자립의지 등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자활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장덕희와 김정은(2017)의 연구에서 가족탄력성은 자활의지에 정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형사처분이나 보호처분을 받은 출소자를 대상으로 한 강수운(2017)의 연구에서 자아탄력성은 자활의지에 긍정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에 대한 연구도 있었는데, 시설에 입소중인 청소년들의 자아탄력성은 자립의지에 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미숙·이창식, 2012). 아울러 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시설청소년들의 자아탄력성 하위요인 중 대인관계는 자립의지 하위요인의 자신감과 근로의욕에, 낙관성은 자신감, 자아통제, 근로의욕에 정적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은숙·이태연, 2015). 가정폭력을 경험한 쉼터여성을 연구한 박명혜(2009)의 연구에서도 대상자들의 자아탄력성은 자립의지와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통해 가족탄력성, 자아탄력성과 자활의지 및 자립의지와의 관계는 정적인 영향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기존의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가족 자원의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는 가족탄력성을 주제로 빈곤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자활의지를 보고자 했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빈곤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완전한 자립을 위한 주요 요인으로 가족자원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가족탄력성과 자활의지의 관계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3. 가족지지와 자활의지

가족은 가족의 구성원을 지지하는 것이 중요한 기능이라 할 수 있다. 가족은 개인 혹은 집단의 단위로 서로를 보호하고 전생애에 걸쳐 위기에 직면했을 때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지지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가족 간의 충분한 지지는 구성원 개인에 대한 이해, 판단, 평가가 가능하도록 돕고(지이레, 2010), 더 나아가 다양한 개인의 심리적 요인인 우울, 자기효능감, 자활의지 등에도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김선경, 2012; 박현미·장석진, 2013; 하준광·석희정, 2015). 하지만 사회 여러 현상을 볼 때 개인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가족 간의 지지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형태가 핵가족화와 더불어 다양화 되면서 적절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가족 구성원들은 심리·정서적, 물질적 공유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가족, 친구, 친척, 지역사회로부터 제공되는 여러 형태의 도움이 사회적지지라고 한다면(Hawkins, 2002), 가족지지는 사회적지지의 하위 개념이라 볼 수 있다(김선경, 2012). 가족지지는 가족구성원 간 가족체계에서 상호작용을 통한 존중과 돌봄을 통해 가치관을 갖도록 하는 지지와 사랑의 주요기능을 의미한다(Hamberg, 1967). 또한 가족체계 외부에서 발생하는 위기로부터 정서적·정신적인 보호를 하며 완충역할을 통해 가족 구성원 개인을 돕는다(민효숙, 2006). 가족지지에 대해 박지원(1985)은 다음과 같이 유형화 하였다. 첫째, 정서적지지는 가족으로부터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애정, 존중, 관심, 신뢰, 경청으로 설명할 수 있다. 둘째, 정보적지지는 제안이나 충고처럼 직면해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여 도움을 주는 것이다. 셋째, 물질적지지는 직면해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물, 시간, 노동 등을 의미한다. 넷째, 평가적지지는 칭찬과 더불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평가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과 같이 정의된 가족지지는 가족의 중요한 자원으로 자활의지를 향상시키는데 영향을 주는 핵심요인으로 주목하고 있다. 가족지지 및 자활의지와 관련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저소득 자활사업 참여 여성을 대상으로 한 김선경(2012)의 연구에서 가족지지가 높을수록 자활의지 수준이 높았다. 또한 서울지역 자활사업 참여자의 가족응집력 하위요인인 가족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자활의지 수준이 높았다(장용연, 2015). 최은주(2007)의 연구에서는 빈곤여성 가구주의 가족응집력, 적응성, 의사소통을 측정하는 가족결속력과 가족, 친척, 친구, 이웃들로부터 받는 다양한 측면을 의미하는 사회적지지는 자활의

지에 긍정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여성 가장 역시 가족지지가 높을수록 자립의지가 높았고(성예현, 2012), 모자가족 가구주의 가족, 이웃 등의 비공식 사회적지원이 많을수록 자립의지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변규란·이정은·최수찬, 2007). 아울러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출소자를 대상으로 한 강수운(2017)의 연구에서 사회적지지의 하위요인인 가족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자활의지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지지와 자활의지의 영향력을 보고자 했던 연구들은 자활사업 참여자, 빈곤 및 모자가정 여성, 출소자 등 다양한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자활사업 참여자들에 관해서 가족지지와 자활의지 두 변수의 영향관계를 보고자 했던 연구 역시 매우 제한적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족자원의 핵심요소인 가족지지와 자활의지와 관계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4. 가족탄력성과 자활의지의 관계에서 가족지지의 매개효과

기존의 선행연구를 통해 가족탄력성과 자활의지의 관계에서 가족지지에 대한 매개효과를 확인해 보고자 했으나 관련한 연구는 극히 제한적이었다. 따라서 주요변수와 관련성이 높은 변수들의 관계를 비롯하여 가족지지가 변수들 사이에서 어떠한 효과성이 검증되었는지를 기술해 보고자 한다. 장덕희와 김정은(2017)의 자활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가족탄력성과 자활의지의 관계 중 사회적 자본은 완전매개효과가 있었고, 출소자 대상의 강수운(2017)의 연구에서는 사회적지지의 하위요인인 가족지지와 자활의지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은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한 연구로 최은숙과 이태연(2015)의 연구에서도 사회적지지와 자립의지 사이에서 가족탄력성은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강수운(2017)의 연구를 지지하였다. 가족지지의 매개효과 및 조절효과에 대한 김선경(2012)의 연구에서 여성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우울감과 자활의지와 관계에서 가족지지가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박선영(2013)의 연구에서는 자활센터 참여자의 긍정적 정서와 희망 사이에서 가족지지는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 대상의 임성철과 이채원(2011)의 연구에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질병관리 사이에서 가족지지는 완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들은 종합해 보면 본 연구의 주요 변수와 관련하여 진행된 연구들 대부분이 심리적 변인 간 관계를 탐구했던 것을 파악할 수 있었으나 가족과 관련한 심리적 변인을 알아보고자 했던 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족탄력성과 자활의지 사이에서 가족지지의 매개효과를 하나의 모형으로 구성하여 그 유의성을 검증해 보고,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가족자원 관련 변인들이 그들의 자활의지에 어떤

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관계를 규명하는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자 및 자료수집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의지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강원도 소재 자활센터 여섯 곳을 선정하여 연구대상을 표집 하였다. 설문조사는 각 지역자활센터장에게 설문지와 답례품을 우편으로 보낸 후 기록된 설문지를 다시 회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설문을 실시하기 전 응답자들이 기록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비밀이 보장되므로 설문에 솔직히 임해 줄 것과 설문대상은 1인가구를 포함하지만, 가족이 전혀 있지 않은 참여자들은 설문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지역자활센터장에게 당부하였다. 설문기간은 2021년 4월 2일부터 5월 7일까지였다. 총 배부한 설문지는 304부였고, 303부가 회수되었다. 이 중 불성실한 응답을 하거나 기록에 누락이 있는 20부를 제외하고 최종 283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측정도구

1) 종속변수

(1) 자활의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생계를 유지하는데 곤란한 사람들이 생계보호에 머무르지 않고 스스로 근로를 함으로써 자활 및 자립하고자 하는 열망과 동기를 포함하는 것을 자활의지라고 할 수 있다. 자활의지에 관한 이론으로 목표설정이론과 기대이론을 들 수 있는데 내적동기 이론의 관점을 추가하여 개발한 Mossholder(1980)의 자활의지 척도를 김승의(2007)가 재구성한 것을 사용하였다. 설문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로 총 11문항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활의지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원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86$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 $\alpha = .91$ 로 높은 신뢰도 수준을 보였다.

2) 독립변수

(1) 가족탄력성

가족사정 척도(Family Assessment Device: FAD)는 Epstein, Baldwin & Bishop(1983)이 가족기능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로 개발하였다. 하위요인은 문제해결, 의사소통, 역할, 정서적 반응, 정서적 개입, 행동조절, 가족의 일반적 기능으로 구성되었

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사정척도를 수정·번안한 홍은숙(2018)의 척도 중 의사소통, 문제해결, 긍정적 시각, 역경에 대한 의미부여 등에 관한 내용으로 재구성한 성미에 외(2020)의 가족탄력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설문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로 총 10문항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탄력성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미에 외(2020)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92$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 $\alpha = .88$ 이었다.

3) 매개변수

(1) 가족지지

지각된 사회적지지 척도(Multidimensional Scal of Perceived Social Support Scale)는 Zimet et al.(1988)이 가족, 친구, 타인으로부터 받고 있다고 지각하는 사회적지지감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로 개발하였다. 본 척도는 가족, 친구, 타인 각각 4문항씩 총 12문항이다. 본 연구에서는 Zimet et al.(1988)의 지각된 사회적지지 척도를 활용한 김도희(2008)의 연구에서 가족지지를 묻는 문항으로 재구성한 하춘광과 석희정(2015)의 가족지지 척도를 사용하였다. 설문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로 총 4문항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지지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춘광과 석희정(2015)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93$ 이었고, 본 연구의 신뢰도 역시 Cronbach $\alpha = .93$ 이었다.

4)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 통제변수에 사용된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성별, 연령, 결혼상태, 학력사항, 건강상태, 가구유형, 돌봄가족, 수급유형, 가구소득, 기타수입, 부채, 주택소유이다. 돌봄가족은 자녀, 부모, 형제 등 자신이 돌보아야 할 가족 구성원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묻는 질문이다. 가구소득은 월평균 가족들의 수입을 의미하고, 기타수입은 자활사업 참여를 통한 근로의 대가로 받는 급여 외에 부동산 임대료, 용돈, 시간제근로 등을 통한 수입이 있는지를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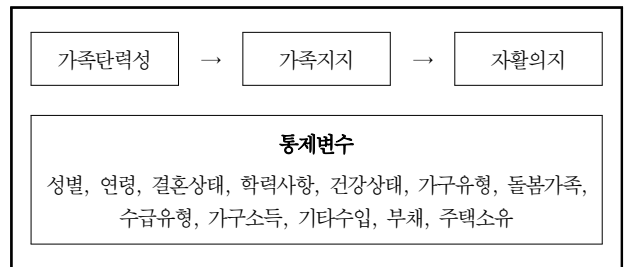
3.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와 연구모형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연구문제1】 자활사업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주요변수의 차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2】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연구문제3】 자활사업 참여자의 가족지지는 가족탄력성과 자활의지 사이를 매개하는가?



〈그림 1〉 연구모형

4. 분석방법

자활사업 참여자 283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가족탄력성과 자활의지 사이에서 가족지지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부호화와 오류검토 작업을 진행하였다. 주요 분석방법은 첫째,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들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제시하였고, 사용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α 값을 제시하였다. 둘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주요변수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T검증과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집단 간 세부적인 차이는 Duncan의 사후분석을 선택하여 진행하였다. 셋째, 자활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확인하기 위해 인구사회학적 특성, 가족탄력성, 가족지지를 순차적으로 투입하여 위계적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자활사업 참여자의 가족탄력성과 자활의지와 관계에서 가족지지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매개효과를 위해 Baron & Kenny(1986) 방법을 진행하였고 매개효과에 대한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5.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의 표본에 해당하는 자활사업 참여자 283명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표 1>에 제시하였고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별은 남자 104명(36.7%), 여자 179명(63.3%)이었고, 연령대는 20대 이하 22명(7.8%), 30대 16명(5.7%), 40대 40명(14.1%), 50대 106명(37.5%), 60대 이상 99명(35.0%)이었다. 결혼상태는 미혼 78명(27.6%), 결혼 64명(22.6%), 이혼 95명(33.6%), 사별 46명(16.3%)이었고, 학력사항은 초졸 이하 51명(18.0%), 중졸 62명(21.9%), 고졸 140명(49.5%), 전문대졸 19명(6.7%), 대졸 이상 11명(3.9%)이었다. 건강상태는 매우 나쁜편 16명(5.7%), 나쁜편 88명(31.1%), 보통 146명(51.6%), 건강한편 27명(9.5%), 매우 건강한편 6명(2.1%)이었다. 가구유형은 부모자녀가구 53명(18.7%), 부부가구 20명(7.1%), 한부모가구 55명(19.4%), 1인가구 136명(48.1%), 기타 19명(6.7%)이었고, 돌봄가족은 있다 124명(43.8%), 없다 159명

(56.2%)이었다. 수급유형은 일반수급자 30명(10.6%), 조건부 수급자 133명(47%), 차상위계층 101명(35.7%), 자활특례자 19명(6.7%)이었다. 가구소득은 70만원 이하 20명(7.1%), 71~100만원 59명(20.8%), 101~150만원 178명(62.9%), 151~200만원 20명(7.1%), 200만원 이상 6명(2.1%)이었다. 기타수입은 있다

12명(4.2%), 없다 271명(95.8%)이었고, 부채는 있다 133명(47.0%), 없다 150명(53.0%)이었다. 주택소유는 자가 69명(24.4%), 전/월세 155명(54.8%), 무상 26명(9.2%), 기타 33명(11.7%)로 나타났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N=283)

	변수	빈도	백분율(%)
성별	남자	104	36.7
	여자	179	63.3
연령대	20대 이하	22	7.8
	30대	16	5.7
	40대	40	14.1
	50대	106	37.5
	60대 이상	99	35.0
		M(SD) = 53.47(12.22)	
결혼상태	미혼	78	27.6
	결혼	64	22.6
	이혼	95	33.6
	사별	46	16.3
학력사항	초졸이하	51	18.0
	중졸	62	21.9
	고졸	140	49.5
	전문대졸	19	6.7
건강상태	대졸이상	11	3.9
	매우나쁜편	16	5.7
	나쁜편	88	31.1
	보통	146	51.6
가구유형	건강한편	27	9.5
	매우건강한편	6	2.1
	부모자녀가구	53	18.7
	부부가구	20	7.1
돌봄가족	한부모가구	55	19.4
	1인가구	136	48.1
	기타	19	6.7
수급유형	있다	124	43.8
	없다	159	56.2
	일반수급자	30	10.6
	조건부수급자	133	47.0
가구소득	차상위계층	101	35.7
	자활특례자	19	6.7
	70만원 이하	20	7.1
	71~100만원	59	20.8
기타수입	101~150만원	178	62.9
	151~200만원	20	7.1
	200만원 이상	6	2.1
	있다	12	4.2
부채	없다	271	95.8
	있다	133	47.0
주택소유	없다	150	53.0
	자가	69	24.4
	전/월세	155	54.8
	무상	26	9.2
	기타	33	11.7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주요변수 차이

자활사업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주요변수의 차이를 확인해 보기 위해 T검증 및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산분석 후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Duncan의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 따른 결과는 <표 2>와 같다.

첫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자활의지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은 돌봄가족, 가구소득이었다. 자활사업 참여자들은 돌봄가족이 없는 경우보다 있는 경우, 가구소득이 71만원 이상

보다 70만원 이하가 자활의지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가족탄력성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은 연령대, 결혼상태, 건강상태, 가구유형, 돌봄가족, 주택소유였다.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연령대가 20대 이하보다 30~50대, 결혼상태가 미혼보다 결혼, 건강상태가 나쁜편 이하보다 보통 이상, 가구유형이 1인가구보다 부모자녀가구, 돌봄가족이 없는 경우보다 있는 경우, 주택소유가 전/월세, 무상, 기타보다 자가인 경우 가족탄력성이 더 높았다. 집단 간 세부적 차이를 위한 Duncan의 사후분석 결과 연령대, 결혼상태, 건강상태, 가구유형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가족지지와 유의미한 차이가

<표 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주요변수 차이(N=283)

변수	자활의지		가족탄력성		가족지지		
	M(SD)	F(t)	M(SD)	F(t)	M(SD)	F(t)	
성별	남자	3.51(.66)	.22	3.08(.75)	.108	3.09(.97)	.39
	여자	3.49(.63)		3.07(.73)		3.04(1.01)	
연령대	20대 이하	3.19(.78)	2.88	2.84(.70)a	3.69*	2.89(.89)	3.37*
	30~50대	3.52(.62)		3.17(.69)b		3.19(.96)	
	60대 이상	3.54(.63)		2.97(.80)ab		2.88(1.05)	
결혼 상태	미혼	3.36(.70)	2.32	2.89(.73)a	3.56*	2.82(.93)a	3.85*
	결혼	3.62(.57)		3.29(.70)b		3.38(.91)b	
	이혼	3.55(.62)		3.06(.76)ab		3.03(.97)ab	
	사별	3.47(.66)		3.12(.68)ab		3.05(1.16)ab	
학력사항	중졸이하	3.54(.59)	.35	2.99(.78)	1.42	2.92(.99)	1.71
	고졸	3.48(.66)		3.12(.68)		3.14(1.04)	
	초대졸이상	3.46(.77)		3.18(.79)		3.15(.91)	
건강상태	나쁜편이하	3.40(.59)	2.79	2.83(.74)a	9.55***	2.73(1.08)a	10.73***
	보통	3.53(.65)		3.22(.66)b		3.19(.89)b	
	건강한편이상	3.69(.72)		3.18(.87)b		3.49(.85)b	
가구유형	부모자녀가구	3.62(.69)	1.55	3.34(.69)b	3.34*	3.43(.72)b	7.52***
	부부가구	3.75(.49)		3.08(.49)ab		3.14(1.04)ab	
	한부모가구	3.46(.65)		3.16(.65)ab		3.37(.96)b	
	1인가구	3.45(.62)		2.93(.62)a		2.74(1.03)a	
돌봄가족	있다	3.64(.62)	3.38**	3.23(.74)	3.20**	3.34(.91)	4.37***
	없다	3.39(.63)		2.95(.71)		2.84(1.01)	
	일반수급자	3.38(.41)		3.16(.66)		3.13(.96)	
수급유형	조건부수급자	3.49(.64)	.90	3.02(.68)	.45	3.01(.97)	.46
	차상위계층	3.57(.72)		3.11(.84)		3.12(1.03)	
	자활특례자	3.39(.49)		3.12(.61)		2.92(1.07)	
가구소득	70만원이하	3.77(.51)	1.97*	2.92(.89)	-1.01	2.95(.97)	-.50
	71만원이상	3.48(.65)		3.09(.72)		3.06(1.00)	
기타수입	있다	3.74(.57)	1.33	3.15(.84)	.36	3.54(1.06)	1.73
	없다	3.49(.64)		3.07(.73)		3.04(.99)	
부채	있다	3.50(.62)	-.07	3.01(.75)	-1.50	2.89(1.08)	-2.72**
	없다	3.50(.67)		3.14(.72)		3.21(.89)	
주택소유	자가	3.54(.67)	.64	3.22(.76)	2.00*	3.23(1.02)	1.69
	전·월세/무상/기타	3.49(.63)		3.03(.72)		3.00(.98)	

* $p < .05$, ** $p < .01$, *** $p < .001$

있는 것은 연령대, 결혼상태, 건강상태, 가구유형, 돌봄가족, 부채였다.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연령대가 30~50대, 20대 이하, 60대 이상 순으로 가족지지가 높았다. 결혼상태가 미혼보다 결혼, 건강상태가 나쁜편 이하보다 보통 이상, 가구유형이 1인가구보다 부모자녀가구, 한부모가구, 기타인 경우, 돌봄가족이 없는 경우보다 있는 경우, 부채가 있는 경우보다 없는 경우 가족지지가 더 높았다. 집단 간 세부적 차이를 위한 Duncan의 사후분석결과 결혼상태, 건강상태, 가구유형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자활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자활의지에 미치는 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공차한계(Tolerance)를 실시하여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확인한 결과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아 본 모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회귀분석은 총 3단계로 실시하였다. 1모형에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2모형에서는 가족탄력성, 3모형에서는 가족지지를 순차적으로 투입하여 자활의지와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자활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1모형의 설명력은 9.9%였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자활사업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요인 중 돌봄가족($\beta=.168, p$

$<.05$), 건강상태($\beta=129, p<.05$) 순으로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활사업 참여자가 돌봄가족이 있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자활의지가 높다고 할 수 있다. 2모형의 설명력은 18.3%이었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1모형에서 유의미하였던 건강상태의 영향력은 제거되었다. 2모형에서는 가족탄력성($\beta=.309, p<.001$), 돌봄가족($\beta=.136, p<.05$) 순으로 자활의지의 영향력이 높았다. 즉, 자활사업 참여자의 가족탄력성 수준이 높을수록 자활의지 수준도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3모형의 설명력은 20.7%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2단계에서 유의미하였던 가족탄력성의 영향력은 제거되었다. 3모형에서는 가족지지($\beta=.234, p<.01$)가 자활의지와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활사업 참여자의 가족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자활의지 수준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3. 가족탄력성과 자활의지 관계에서 가족지지의 매개효과 검증

1) 가족지지의 가족탄력성과 자활의지 간의 매개효과

자활사업 참여자의 가족탄력성과 자활의지와의 관계에서 가족지지의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 다음의 절차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1단계는 독립변수인 가족탄력성에 대해 매개변수인 가족지

<표 3> 가족탄력성 및 가족지지가 자활의지에 미치는 영향(N=283)

변수	1모형			2모형			3모형		
	B	β	Tol	B	β	Tol	B	β	Tol
(상수)		2.978***			2.495***			2.535***	
성별	.021	.016	.927	.016	.012	.927	.002	.001	.923
연령	.007	.131	.695	.005	.092	.686	.005	.092	.686
결혼상태	.030	.019	.722	.001	.001	.719	.000	.000	.719
학력사항	-.001	-.001	.810	-.027	-.042	.797	-.028	-.044	.797
건강상태	.103*	.129	.857	.062	.077	.835	.046	.058	.824
가구유형	.082	.063	.501	.048	.038	.499	.007	.006	.489
돌봄가족	.217*	.168	.662	.175*	.136	.656	.160	.124	.654
수급유형	-.177	-.085	.885	-.191	-.092	.885	-.164	-.079	.879
가구소득	-.098	-.118	.838	-.093	-.112	.838	-.093	-.112	.838
기타수입	.281	.088	.940	.268	.084	.940	.198	.062	.922
부채	.004	.003	.887	-.026	-.020	.882	-.051	-.040	.869
주택소유	.026	.017	.939	-.012	-.008	.933	-.006	-.004	.932
가족탄력성		-		.270***	.309	.884	.136	.155	.467
가족지지		-			-		.151**	.234	.431
R ² (Adj. R ²)		.099(.059)			.183(.144)			.207(.165)	
F(p)		2.461**			4.643***			4.990***	

*Dummy Variable

1) 성별: 1(남자), 2) 결혼상태: 1(결혼), 3) 가구유형: 1(부모자녀가구, 부부가구, 한부모가구), 4) 돌봄가족: 1(있다), 5) 수급유형: 1(일반수급자),

6) 기타수입: 1(있다), 7) 부채: 1(없다), 8) 주택소유: 1(자가)

* $p < .05$, ** $p < .01$, *** $p < .001$

〈표 4〉 가족지지의 가족탄력성과 자활의지 간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회귀분석(N=283)

변수	단계	1단계 (독립변수→매개변수)		2단계 (독립변수→종속변수)		3단계 (독립/매개변수→종속변수)	
		B	β	B	β	B	β
(상수)		-.265		2.495***		2.535***	
성별		.093	.045	.016	.012	.002	.001
연령		.000	-.002	.005	.092	.005	.092
결혼상태		.005	.002	.001	.001	.000	.000
학력사항		.009	.009	-.027	-.042	-.028	-.044
건강상태		.102	.082	.062	.077	.046	.058
가구유형		.273*	.137	.048	.038	.007	.006
돌봄가족		.098	.049	.175*	.136	.160	.124
수급유형		-.181	-.056	-.191	-.092	-.164	-.079
가구소득		.002	.001	-.093	-.112	-.093	-.112
기타수입		.468*	.095	.268	.084	.198	.062
부채		.170*	.085	-.026	-.020	-.051	-.040
주택소유		-.040	-.017	-.012	-.008	-.006	-.004
가족탄력성		.892***	.659	.270***	.309	.136	.155
가족지지		-	-	-	-	.151**	.234
R2(Adj. R ²)		.569(.548)		.183(.144)		.207(.165)	
F(p)		27.326***		4.643***		4.990***	

$p < .05$, ** $p < .01$, *** $p < .001$

지를 회귀시킨 결과 가족탄력성과 가족지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659, p < .001$). 2 단계는 독립변수인 가족탄력성에 대해 종속변수인 자활의지를 회귀시킨 결과 가족탄력성과 자활의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309, p < .001$). 3단계는 독립변수인 가족탄력성과 매개변수인 가족지지를 종속변수인 자활의지에 회귀시킨 결과 가족탄력성의 영향력은 제거되었고, 가족지지($\beta = .234, p < .01$)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지지는 가족탄력성과 자활의지 사이에서 완전매개효과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2) 가족지지의 가족탄력성과 자활의지 간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독립변수인 가족탄력성과 종속변수인 자활의지 사이에서 가족지지의 정확한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을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실시결과 Z값은 2.801($p < .01$)로 산출되어 가족지지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 가족지지의 가족탄력성과 자활의지 간의 매개효과 검증

변수경로	Z값	p
가족탄력성 → 가족지지 → 자활의지	2.801	.01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자활사업 참여자의 가족탄력성과 자활의지 관계에서 가족지지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강원도 소재 자활센터 참여자 28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값들을 IBM SPSS18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문제를 토대로 한 주요 결론 및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자활사업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주요 변수와의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돌봄가족, 가구소득은 자활의지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돌봄가족이 없는 경우보다 있는 경우 자활의지가 더 높았는데, 김승의(2007)의 연구에서도 자활사업 참여자가 미취학 자녀, 동거자녀가 있는 경우 자활의지 수준이 더 높았고, 저소득층 여성을 대상으로 한 김선경(2012)의 연구에서도 부양자녀수는 자활의지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를 지지하였다. 즉,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가구 구성원 중 자녀나 부모, 배우자 및 형제 등을 돌봐야 하는 상황인 경우 자활에 좀 더 의지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가구소득이 71만원 이상보다 70만원 이하인 경우 자활의지가 더 높았다. 즉, 경제적 수준이 낮은 집단인 경우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생계보호에 무관심하지 않고 스스로 근로함으로써 자활하고자 하는 열망을 더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연령대, 결혼상태, 건강상태, 가구유형, 돌봄가족, 주택소유는 가족탄력성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연령대, 결혼상태, 건강상태, 가구유형, 돌봄가족, 부채는 가족지지와 유의

미한 차이가 있어 가족탄력성과 유사한 형태를 보였다. 연령대는 30~50대, 20대 이하, 60대 이상 순으로 가족탄력성이 높았는데, 대상이 다르지만 정신신체 장애아동을 둔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이상미(2009)의 연구에서도 대상자의 연령이 40대 이하, 41~50세, 50대 이상 순으로 가족탄력성의 하위요인인 의사소통과정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탄력성 수준이 가장 높은 중년기 세대는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돌봄의 욕구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자신의 세대를 넘어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것에 관심을 갖는 생산성이 강조되는데 이는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 뿐 아니라 사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는 배려를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가족 간 혹은 사회에서의 이러한 배려는 결국 가족자원의 중요한 요소인 가족탄력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결혼상태에 따른 가족탄력성과 가족지지의 수준은 결혼, 사별, 이혼, 미혼 순 이었는데, 결혼이 미혼보다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연령층이 비슷한 간병증환자를 대상으로 한 김남영(2003)의 연구에서도 결혼상태가 기혼인 경우가 기타보다 가족지지 수준이 더 높아 본 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의 평균연령이 53.47(SD=12.22) 세 임을 고려해 볼 때 연구대상자들의 생애주기에 따른 시기가 결혼 중후반기가 대부분일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가족탄력성은 결혼만족도와도 관련 지을 수 있는데(박서윤, 2013), 부부의 결혼만족도는 신혼기에 최고점 달하고, 자녀 출산 및 육아기를 보내는 기간에는 가장 낮아지게 되며, 이후 자녀들의 성장 및 독립에 해당하는 시기에는 다시 높아진다(김정희, 2019). 따라서 결혼상태가 배우자가 있는 대상자들의 결혼만족도 수준은 높은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고, 이는 역시 가족탄력성과 가족지지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건강상태에 따른 두 독립변수와의 차이는 나쁜 편 이하보다 보통 이상인 경우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기혼중년남성을 대상으로 한 이희운(2011)의 연구에서 건강상태가 약한 편인 경우보다 좋은 편인 경우 가족탄력성이 더 높아 본 연구를 지지하였다. 즉, 개인의 건강상태도 경제활동을 비롯한, 돌봄에 대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 가족자원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여 가족탄력성과 가족지지 변인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가구유형은 부모자녀가구, 한부모가구, 기타, 부부가구, 1인가구 순으로 가족탄력성과 가족지지 수준이 높았으며, 부모자녀가구가 1인가구보다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었다. 즉, 부모자녀 가구를 비롯한 가족 구성원이 있는 가구들은 그렇지 않은 1인가구보다 가족탄력성과 가족지지 수준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박지현(2009)의 연구에서 40~50대 중년 남녀의 가족형태가 3세대, 2세대, 부부가구 순으로 가족탄력성의 하위요인인 신념체계와 조직유형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 본 연구를 지지하였다. 즉, 가족 구성원들은 함께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문제해결 및 역경 등을 잘 이겨낼 수 있으며, 서로 지지 받는다고 볼 수 있다. 돌봄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탄력성과 가족지지 수준이 더 높았다. 가족 구성원 중 돌보

아야 할 자녀, 부모, 형제 등의 대상이 있다는 것은 그에 대한 책임감을 갖게 되고 이러한 책임감은 가족 간 의사소통 및 문제 해결을 의미하는 가족탄력성과 가족지지 수준을 높인다고 이해할 수 있다. 부채와 가족지지, 주택소유와 가족탄력성 변수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가족의 부채와 주택소유는 가족의 경제 상태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가족자원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주요변수들과의 차이검증을 통해 개인 및 가족의 여러 상황들은 가족탄력성과 가족지지에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 건강한 가족의 기반이 되는 자활의지 형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분석하였다. 자활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인구사회학적 요인 중 건강상태, 돌봄가족 이었으며, 주요변수인 가족탄력성과 가족지지로 나타났다. 즉, 자활사업 참여자들은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자녀, 부모, 형제 등의 돌봄가족이 있을수록 자활의지 수준이 높았다. 또한 가족의 의사소통, 문제해결 능력과 긍정적 시각 등에 대한 가족의 일반적 기능을 의미하는 가족탄력성 수준이 높을수록 자활사업 참여자들은 생계보호에 머무르지 않고 스스로 자활 및 자립하고자 하는 동기와 열망을 갖게 된다. 장덕희와 김정은(2017)의 자활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가족탄력성과 자활의지는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가족으로부터 지지감을 받고 있다고 지각하는 수준이 높을수록 자활의지 수준이 높았다. 자활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장용인(2015), 김선경(2012), 송인한 외(2012)의 연구에서도 가족지지와 자활의지는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일치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현재의 빈곤과 다음 세대로의 대물림을 예방하기 위한 대안으로 자활의지 수준을 높여야 하는데, 이때 가족자원의 중요한 요인인 가족탄력성과 가족지지가 핵심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자활사업 참여자의 가족탄력성과 자활의지 관계에서 가족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가족탄력성은 자활의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는데, 이때 매개변수인 가족지지는 완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가족탄력성은 가족지지 수준을 향상시키고, 가족지지는 전적으로 자활의지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환언하자면,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가족 간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문제해결 능력이 있으며, 사물이나 상황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과 역경을 헤쳐나가고자 하는 나름의 노력들은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지지 받고 있다고 인식하게 되며, 이러한 인식은 개인 스스로 자활 및 자립하고자 하는 열망과 동기를 갖게 된다고 해석 할 수 있다. 따라서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자활의지를 고취하기 위해서는 가족탄력성과 가족지지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정리해보면,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자활의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변인으로 가족 구성원의 개인적 요인도 작용하지만 그보다 가족 간 이루어지는 가족탄력성과 가족의 지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활사업 참여자 개인에게도 가족은 역시 삶의 가장 근본적인 원동력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 개인이나 가족의 생계 유지와 더불어 가족기능과 사회적지지 기반 체계를 강화하도록 도울 수 있는 개입 방안이 필요하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의지 향상을 위해서는 가족탄력성과 가족지지가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자활의지 향상을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활사레관리 구성원에 가족 관련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하다. 자활사레관리의 자활사업 참여 전 진입과정에 해당하는 Gateway단계는 초기 2개월~3개월 동안 자활근로 참여자들의 구체적인 자활경로를 세우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기본 지식과 소양을 익히는 과정이다. Gateway단계에서는 주로 상담, 기초교육, 욕구조사에 기반한 IAP(개인별 자립경로, Individual Action Plan)와 ISP(개인별 자활지원계획, Individual Service Plan)를 수립하게 되는데 이를 관리하는 전담관리자를 두게 되어있다. 전담관리자의 자격기준은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직업상담사 중 1개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사례관리요구 조사지에는 참여자들에 대한 건강의 욕구, 가족관계 및 돌봄의 욕구, 사회적 관계의 욕구, 가정경제의 욕구, 향후 자립과 관련한 문항들로 구성되어있다(보건복지부, 2021).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자활을 위해 그들의 가족 관련 상황들을 고려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참여자들의 가족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assessment)을 위해서는 전담관리자의 자격기준에 건강가정사를 포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지역사회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가족관련 학과를 보유하고 있는 대학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지역자활센터에서는 격월 1회 이상 지역사회 내 다양한 사회복지 유관기관과 연계한 외부통합사례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주요변인과의 차이검증을 통해 분석한 결과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가족자원의 특성을 통한 탈빈곤 과정에서 연령이 20대 이하이고, 미혼이며, 건강상태가 나쁜편이고, 돌봐야 할 가족이 없으며, 1인가구의 특성을 가진 집단이 가족탄력성과 가족지지가 가장 취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취약 집단 특성을 지닌 참여자들에 대한 선별을 통해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맞춤형 자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가족과 관련한 전문가의 협조를 통해 적합한 사정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자활사업 참여자교육 프로그램에 가족관련 교육을 첨가하여 확대 실시해야 한다. 지역자활센터는 자활 및 자립의 욕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참여자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사

업단 운영을 위한 참여자 직무 및 소양교육 시간은 연간 최대 8시간까지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참여자교육 소양교육 커리큘럼에 가족간 의사소통, 문제해결 방법, 일반적 기능 등의 가족의 탄력성과 가족지지 등 건강가족을 이루기 위한 가족생활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다음의 제한점을 갖는다. 조사대상을 강원도 소재 지역자활센터에 한정함으로써 강원도 이외 지역에 대한 표본의 대표성이 없으므로 모든 자활사업 참여자에게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따른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전국적 광역자활센터를 포함한 지역자활센터 규모의 표집을 통해 대표성이 확보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의지 수준 향상을 위한 가족탄력성과 가족지지 및 다양한 가족자원 변인들의 효과성이 입증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1) 강남식 · 신은주 · 성정현(2002). 여성조건부 수급자들의 실태와 자활의욕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19, 23-50.
- 2) 강수운(2017). 출소자가 인식한 사회적지지와 자활의지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과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매개효과.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3) 강수운 · 이동훈(2019). 출소자가 인식한 사회적지지와 자활의지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과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1(3), 749-777. DOI : 10.23844/kjcp.2019.08.31.3.749.
- 4) 경승구 · 이용갑(2018). 단기·장기 자활사업 참가자의 취·창업 의지 영향요인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8(6), 679-690. DOI : 10.5392/JKCA.2018.18.06.679.
- 5) 고영희(2014). 빈곤아동의 가족건강성, 자아탄력성 우울과의 관계.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6) 권민숙 · 윤영석 · 김근식(2012).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의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자치행정학보, 26(3), 435-454. DOI : 10.18398/kjlgas.2012.26.3.435.
- 7) 권용신(2009). 자활서비스질이 자활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직무만족의 매개효과. 대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8) 김교성 · 강철희(2003). 취업대상 조건부수급자의 경제적자활로의 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2, 5-32.
- 9) 김남영(2003). 가족지지가 간경변증 환자의 자가간호와 질병상태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0) 김도희(2008). 결혼이민 여성의 양육효능감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11) 김미숙 · 이창식(2012). 시설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자립의지의 관계에서 희망의 매개효과.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3(2), 636-641.

- 12) 김미옥(2001). 장애아동 가족의 적응에 대한 가족탄력성의 영향력 분석. 한국가족복지학, 8, 9-40.
- 13) 김부강(2013). 저소득여성의 자활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4) 김선경(2012). 저소득 자활참여 여성의 우울감과 자활의지: 가족지지의 조절효과 분석.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5) 김세원(2005). 자활사업 대상자의 자활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16) 김승의(2007).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의욕 및 취업·창업 관련 활동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17) 김용석·이재완·한영미·김묘정·정한샘·최현정·이석호(2015). 자활사업 참여자의 음주문제, 참여기간, 자활의지간 관계. 한국사회복지학, 67(1), 143-163. DOI : 10.20970/kasw.2015.67.1.006.
- 18) 김정희(2019). 기혼남녀의 부부의사소통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부부친밀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지원경영학회지, 23(4), 57-73. DOI : 10.22626/jkfrma.2019.23.4.004.
- 19) 나구원(2011). 자활사업 프로그램 유형이 참여자의 자활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0) 노희경(2004). 자활사업 참여자의 근로의욕 증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1) 민효숙(2006). 유방암 환자를 위한 단계적 가족참여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효과.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2) 박경숙·박능후(2001). 저소득층 여성가장 생활실태 조사 및 자활 프로그램 개발. 경기도.
- 23) 박명혜(2009). 부부폭력 피해여성의 심리사회적 요인이 자립의지에 미치는 영향 연구. 상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4) 박서윤(2013). 다문화가정의 가족탄력성과 결혼만족도에 대한 연구: 베트남 결혼이주여성과 한국 남성을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5) 박선영(2013). 저소득층의 긍정적 정서 및 우울감과 희망의 관계에서 가족지지의 매개 및 조절 역할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40, 189-214. DOI : 10.16975/kjfs.2013.40.007.
- 26) 박영란·강철희(1999). 저소득 모자가정 가구주의 자립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3, 91-116.
- 27) 박정애(2015). 빈곤아동과 일반아동이 지각하는 가족건강성, 사회적지지, 자아탄력성의 관계. 경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8) 박지원(1985). 사회적지지 척도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9) 박지현(2009). 중년기의 가족스트레스 및 가족탄력성이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30) 박현미·장석진(2013). 가족지지와 청소년 진로태도 성숙과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한국가족치료학회지, 21(1), 1-21. DOI : 10.21479/kaft.2013.21.1.1.
- 31) 변규관·이정은·최수찬(2007). 모자보호시설 가구주의 심리사회적 요인이 자립의지에 미치는 영향: 공식·비공식 사회적 지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21, 139-166. DOI : 10.16975/kjfs.2007.21.005.
- 32) 보건복지부(2012). 2012년 자활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 33) 보건복지부(2021). 2021년 자활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 34) 성미애·진미정·장영은·손서희(2020). 코로나19에 따른 1인가구의 일상생활 변화 및 스트레스.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5(3), 3-20.
- 35) 성예현(2013). 빈곤여성가장의 자립의지 영향 요인.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36) 송인한·박장호·김리자(2012). 자활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성별차이: 남성과 여성 자활사업 참여자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17(3), 457-474. DOI : 10.18205/kpa.2012.17.3.008.
- 37) 엄태영·김동기·허미경(2008). 자활사업 실무자에 대한 만족도와 동료지지가 여성자활근로참여자의 정서적 자활에 미치는 영향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검증: 대전지역 가사·간병사업 참여자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8, 1-24.
- 38) 우준희(2010). 근로연계복지로서 한국 자활지원사업의 한계와 가능성. 대한정치학회보, 17(3), 19-48.
- 39) 이래혁·김승아·노혜진(2007). 자활사업 참여자의 심리사회 특성이 정서적 자활에 미치는 영향. (사)한국자활후원기관협회 자활사업논문 공모전 자료집, 6-39.
- 40) 이상록(2003). 자활사업에 대한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인식과 태도가 자활사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연구, 21, 105-136.
- 41) 이상미(2009). 정신지체아동 아버지의 가족탄력성과 가족적응에 관한 연구. 경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42) 이석환·장소현·최동국·이용갑(2014). 건강인식 기준 자활사업 참여자 집단들의 자활의지 영향 요인 비교연구. 보건과 사회과학, 36, 133-156.
- 43) 이성휘·박정윤·김양희·장영은·어성연(2009). 빈곤 가정아동이 지각한 가족건강성 및 자아탄력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7(2), 305-316.
- 44) 이인수(2004). 가족탄력성 증진을 위한 가족심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 정신장애 자녀를 둔 가족을 중심으로.

- 한국가족관계학회지, 9(2), 221-239.
- 45) 이진석(2017). 긍정적 가족관계가 자활성가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54, 195-217. DOI : 10.17997/SWRY.54.1.8.
- 46) 이희운(2011). 기혼중년남성의 가족탄력성이 가족스트레스 인지 및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47) 이희운 · 박정윤 · 조유현(2013). 가족탄력성이 가족스트레스 인지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7(4), 39-56.
- 48) 임성철 · 이채원(2011).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1형 당뇨병 청소년의 질병관리에 미치는 영향: 가족지지의 매개효과 분석. 한국가족복지학, 32, 235-260. DOI : 10.16975/kjfs.2011.32.008.
- 49) 장덕희 · 김정은(2017). 자활사업 참여자의 가족탄력성이 자활의지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자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인문사회21, 8(2), 295-312. DOI : 10.22143/HSS21.8.2.16.
- 50) 장용언(2015). 서울지역 자활사업 참여자의 가족응집력이 자활의지에 미치는 영향: 정신건강의 매개효과. 사회과학연구, 22(3), 127-156.
- 51) 장용언 · 서정열 · 황현주(2014). 서울지역 자활사업 참여자의 지각된 스트레스가 자활의지에 미치는 영향: 자기유능감의 매개효과. 서울도시연구, 15(1), 149-162.
- 52) 정원오 · 김진구(2005). 자활사업에 대한 참여자들의 주관적 평가와 자립전망: 경기지역 참여자들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28, 35-67.
- 53) 지이레(2010).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지지와 진로결정 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54) 최별 · 이성규(2019). 사회적지지와 노숙인의 자활의지간 우울의 매개효과. 정신보건과사회사업, 47(1), 119-146. DOI : 10.24301/MHSW.2019.03.47.1.119.
- 55) 최은숙 · 이태연(2015). 시설청소년에 대한 사회적지지가 자립의지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2(7), 445-468.
- 56) 최은주(2007). 빈곤 여성가구주의 자활의지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57) 최종희(2010). 사회적지지가 자활대상자의 자립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58) 하춘광 · 석희정(2015). 호주이민 한인 중년여성의 가족지지와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9(3), 63-80.
- 59)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누리집(2021). <https://www.kdissw.or.kr/menu.es?mid=a10601070000>.
- 60) 한상진 · 김용식(2007). 사회적 배제과정과 자활의 측면들: 울산동구 빈곤층의 생애과정을 중심으로. 노동정책연구, 7(1), 139-172.
- 61) 홍은숙(2018). 가족탄력성 척도 타당화 연구. 특수교육학연구, 53(2), 1-22. DOI : 10.15861/kjse.2018.53.2.1.
- 62) 황보람 · 이진열 · 김영진 · 최은미(2015). 자활서비스 질이 자활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희망의 매개효과. 사회복지정책, 42(1), 265-292. DOI : 10.15855/swp.2015.42.1.265.
- 63) Amy, L. E.(2000). Situational and psychological predictors of successful transitions from welfare to work.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 64) Baron, R. M. & Kenny, D. A.(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DOI : 10.1037/0022-3514.51.6.1173.
- 65) Epstein, N. B. Baldwin, L. M. & Bishop, D. S.(1983). The McMaster family assessment device.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9(2), 171-180. DOI : 10.1111/j.1752-0606.1983.tb01497.x.
- 66) Gay, S. & E. Borus.(1980). Validating performance indications for employment and training programs. The Journal of Human Resources, 15(1), 29-48. DOI : 10.2307/145345.
- 67) Hamberg, D. A.(1967). A perspective on coping behavior. Seeking and utilizing information in major transition.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17(3), 277-284. DOI : 10.11621/pir.2013.0311
- 68) Hawkins, R. L.(2002). How Low-income single mother leave welfare for economic self-sufficiency: The role of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Human Capital and Social Capital. Ph. D. Dissertation, Brandeis University.
- 69) Hawley, D. & DeHaan, L.(1996). Toward a definition of family resilience: Integrating life-span and family perspectives. Family Processes, 35, 283-298. DOI : 10.1111/j.1545-5300.1996.00283.x.
- 70) Masten, A. S.(2001). Ordinary magic: Resilience processes in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56(3), 227-238. DOI : 10.1037/0003-066x.56.3.227.
- 71) McCubbin, H. I., Thompson, E. A., Thompson A. I. & Futrell J. A.(1999). The dynamics of resilient family.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 Inc.
- 72) Mossholder, Kevin W.(1980). Effects of externally mediated goal setting on intrinsic motivation: A laboratory experiment.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65(2).
- 73) Valentine, L. & Feinauer, L. L.(1993). Resilience factors associated with female survivors of childhood sexual

- abus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1(3), 216-224. DOI : 10.1080/01926189308250920.
- 74) Walsh, F.(1998). Strengthening family resilience. New York: Guilford Press.
- 75) Wilson, WilliamJ.(1987). The truly disadvantaged.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76) Zimet, G. D, Dahlem, N. W., Zimet, S. G. & Farley, G. K.(1988). The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2(1), 30-41. DOI : 10.1207/s15327752jpa5201_2.

■ 투 고 일 : 2021년 06월 13일

■ 심 사 일 : 2021년 06월 30일

■ 게재 확정 일 : 2021년 07월 09일